



인터뷰



### 일본 국제원자력개발(주)

타케무로 이치로(武黒一郎) 사장(전 東京電力 부사장)

일본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의 최첨단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나라에 대한 수주는 순조롭다고 할 수는 없다. 수주전에 이룬 나라들에서는 정부 수뇌가 상대국에 들어가 국민일체의 자세로 맞추어 나가는 것에 비해 일본은 정부와 민간의 연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맞추어 원자력 발전을 국가의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하자는 방침을 세운 정부와 전력사, 플랜트 메이커들이 건설에서 운전까지의 일관된 수주 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개발(주)를 설립했다. 일본에서도 국민일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 ○ 국제원자력개발(주)의 설립 배경은?

금년 각국에서 에너지 공급의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흐름과 병행하여 경제 성장이 빠른 신흥국에서의 전력 수요의 급증에 원자력 발전 건설로 대응하자는 큰 흐름이 생겨났다. 물론 지구 환경 문제가 보다 부각되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 시장이 확대되어가는 현실에 일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나갈까 하는 모색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방법을 취하고자 국제원자력개발(주)를 설립했다고 본다.

#### ○ 국제원자력개발(주)의 구성은?

동경전력, 관서전력, 중부전력 등 전력 회사, 히타치제작소, 미쯔비시중공업의 플랜트 업체 3사, 거기에 정부쪽 기관도 참여한다. 설립은 금년 가을로 예정하고 있는데 마침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에서의 원자력 발전 수주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월 하순 베트남 수상이 경제산업 장관과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 사장단과 회담하여 일본에게 포괄적인 제안을 해왔다.

#### ○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수주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시해야 할 점은?

우리들은 50년간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안전하게 조업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이는 증대하는 에너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고 지구 환경 문제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안전, 안정,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에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는 이러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실적이 있다. 이전에는 정부에 지원과 협력을 부탁했으나 이번에는 성장 전략에 맞추어 종합적 대책을 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해온 안전, 안정 운전의 실적이 여러 외국으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오랜 기간에 걸친 안전, 안정의 실적이 수주 획득의 큰 장점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 원자력 발전은 각 부분이 확고히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받쳐주는 조직 전체가 안전문화를 육성시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원전 도입국에 이해시킴으로써 다같이 밀고 나가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 인력의 육성,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하여 수주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있다.

○ 단적으로 팔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본의 축적된 경험을 수주에 살리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영향은 전세계로에 파급된다. 원자력 발전이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며 상당한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를 위해 지극히 많은 노력을 쌓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도 지난 동안 실수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지만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안전문화의 구축이나 철저한 정보 공개, 품질 관리의 개선에 열심히 임해왔다.

○ 일본의 높은 안전 실적에 대해 국제적 이해를 얻어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행해온 원자력 발전의 건설, 가동의 실적을 견고하게 집대성하여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수행시키는 환경을 정돈하여 길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

베트남에서의 수주 획득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상대국의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무리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자력개발(주)를 핵으로 하여 지혜를 짜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라이벌 나라도 열심히 도전해올 것이므로 우리들도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게 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전개해 나가고 싶다.